

시설 구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원 조달, 끊임없는 고민을

부산과 경남의 건설·부동산 공약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책의 완성도가 높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진전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공약들 간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민간부문의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성 확보 방안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주요한 이슈라고 여겨진다.

울산 : 3선 시장, 공약 이행 무난할 것으로 기대

추 성 태 | 경상일보 경제부장

3선 연임에 성공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의 민선 5기 공약은 경제산업, 환경녹지, 문화복지, 도시기반, 감동행정 등 5대 분야 70개 세부 사업으로 돼 있다. 민선 3, 4기 시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 공약을 실천에 옮긴다는 구상이다. 산업 수도 울산을 이끌어가는 경제 시장답게 박 시장의 핵심 공약들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고, 이들 사업은 필수적으로 건설을 수반하고 있어 공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지역 내 건설산업도 더불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임기 내 19.5조원 소요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민선5기 시장 공약 이행 계획'을 살펴보면 민선 5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임기 내(2011~2014년) 19조 5,297억원(올해 말까지 기투자 4조 7,435억원 별도), 임기 후(2015년 이후) 4조 3,149억원 등 총 28조 5,88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 중 임기 내 투자 재원은 국비 4조 9,426억원과 시비 2조 4,505억원, 민자 12조

1,366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고, 분야별 투자 계획은 경제산업 15개 사업 13조 9,614억원, 도시기반 17개 사업 10조 8,146억원, 환경녹지 12개 사업 3

민선 5기 울산시장 주요 공약 및 투자 계획

공약명	사업 연도	총사업비
5조원 투자 유치 3만개 일자리 창출	2010~14년	8조 5,345억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2010~15년(1단계)	2조 488억원
산업용지 1,600만㎡ 탄력적 조성	2010~14년	2조 3,350억원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2008~14년	3,208억원
중산동 이화 건설기계산업단지 조성	2008~14년	1,394억원
세계 녹색산업 클러스터 육성	2010~14년	1,640억원
세계 4대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2010~15년	1,997억원
2차 전자산업 대대적 육성	2010~14년	304억원
울산 4대강 정비사업	2011~18년	6,542억원
도시 명품공원 조성사업	2009~15년	2,252억원
광역시도로망 대대적 확충	2003~15년	1조 4,352억원
KTX 울산역세권 개발사업	2008~16년	7,375억원
동해남부선 복선화· 신형만 입입 철도	2016년까지	4조 7,932억원
강동관광휴양단지 본격 개발	2005~16년	2조 2,413억원
임대형 보증자리주택 건립 지원	2008~14년	2,832억원

조 3,756억원, 문화복지 12개 사업 3조 3,756억원, 행정 분야 7개 사업 587억원 등이다.

경제산업 분야에는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기업 유치 등에 총 8조원을 투입하고 울산 신항만 일원에 조성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에 2조 488억원, 1,600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조 3,3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와 생산 기능이 융합된 첨단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에 3,208억원, 중산동 이화 건설기계산업단지 조성 1,394억원을 비롯해 울산 하이테크벨리단지 조성과 2차 전지 사업도 계획돼 있다.

도시기반 분야는 KTX 울산역세권 개발에 7,375억원, 광역도로망 확충에 1조 4,352억원, 동해남부선 복선화 및 신항만 인입철도 사업에 4조 7,93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환경녹지 분야는 울산 4대강(태화강, 동천, 외항강, 회야강) 정비사업에 6,542억원, 강동관광휴양단지 개발 2조 2,413억원, 그리고 문화복지 분야는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2,8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자 유치가 관건

그러나 민선 5기가 이들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우선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비와 시비뿐 아니라 12조원에 이르는 민자 유치가 최대 관건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경우 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가급적 민자 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어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자 비중이 늘어날 경우 사업 장기화와 함께

2단계 사업(2016~20년)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산업용지 1,600만㎡ 추가 조성에 1조 6,000억원이 필요하고, 강동권 개발사업과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등이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민자 유치를 수반하고 있는 것도 난제 중 하나다.

지역 업체 참여 방안 강구

울산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나 항만사업, 대형 민간사업, 아파트사업 등은 대부분 1군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한다. 지역 업체들이 컨소시엄 참여나 공동도급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지만 보조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500위 이내 건설사가 4~5개밖에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져 독자적인 수주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극동건설이 지역 내 대형 항만공사 수주를 위해 지난 2004년 본사를 울산으로 옮겨 대형 사업을 수주하며 한동안 울산 지역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를 달렸지만 지난해 공주로 본사를 옮긴 이후에는 현대중공업 건설부문이 명맥을 잇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근래에는 자체 사업만 수행하고 있어 지역 대형 사업은 사실상 외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지역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때론 1군 업체들에게 지역 업체들과의 컨소시엄도 유도하고 있다.

박맹우 시장은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4기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될 만큼 공약 이행률이 높아 민선 5기에서도 일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CERIK